

# 르네상스 이후 출현한 다양한 '이즘' 조명

차하순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양의 지적운동」

강정인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

이 책을 공동편집한 김영한교수(서강대학교 사학과)는 '머리말'에서 지난 33년 동안 서강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면서 정년을 맞이한 차하순(車河淳)교수의 학덕과 학을 기리기 위해 제자와 후학들이 이 책을 집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이 책은 차하순 교수의 평생의 연구목표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이래 서양의 근대사상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 책의 제목을 (흔히 사용될 법한) '서양의 지적전통'이 아닌 '지적운동'으로 정한 이유도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새로운 이즘과 이념은 기존의 이즘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운동'으로서 출현하고 둘째, 그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혁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은 지성사 또는 사상사를 모두 동적인 차원에서 '운동의 역사'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서 있다.

## 20개의 '이즘' 해당전공 학자들이 집필

서술상의 체계를 위해 이 책은 20개의 이즘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먼저 '인간이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의 문제,' 곧 '당위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이 책은 먼저 '이상사회론'(이상주의)과 '현실정치론'(현실주의)을 구분한다. 그 다음으로 "목표에 접근하는 태도와 방법이 이성적·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본능적이거나에 따라 '과학과 진보의 신앙'(합리주의)과 '반이성의 이데올로기'(반합리주의)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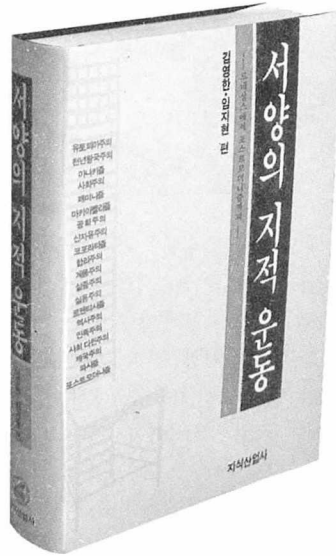
이 책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된 이즘들을 상기(上記)한 네 개의 범주하에서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제1부 '이상사회론'에서는 유토피아주의, 천년왕국주의, 아나키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제2부 '현실정치론'에서는 마키아벨리즘, 공화주의, 신자유주의, 코포라리즘이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제3부 '과학과 진보의 신앙'에서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실증주의, 실용주의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제4부 '반이성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로만티시즘, 역사주의, 민족주의, 사회 다원주의, 제국주의, 파시즘,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책의 장점은 서양의 다양한 지적운동에 대해서 포괄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배합, 자칫 난삽해지기 쉬운 지성사의 주제를 일반독자들을 위해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서양 사상사 사전'으로서의 효용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되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서 각 이즘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학자들이 각 이즘을 체계적이고 비교적 알기쉽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은 지식 대중은 물론 일반 대학교수들이 르네상스 이래 분출된 서양의 다양한 지적운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예컨대 필자는 정치학도로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광차섭교수의 논의는 그 이름이 여러 시대-계몽사상시대, 백과전서파, 민족주의시대, 이탈리아 통일운동기, 좌파에서의 마키아벨리즘의 수용 등—에 걸쳐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간략하지만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필자의 이해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다른 한편 김옥동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알기쉽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문외한도 어렵지 않게 포스트모더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한 마디로 이 책의 장점은 서양의 다양한 지적운동에 대해서 포괄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배합하여 자칫 난삽해지기 쉬운 지성사의 주제를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비교적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서양 사상사 사전'으로서의 효용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저자들이 의도한 대로 대부분의 기념논총처럼 행사를 위한 일과성 전시용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애장서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참신한 시도는 앞으로 발간될 많은 기념논총들이 본받아야 될 하나의 전범(典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 기념논총의 전범 제시한 충실한 내용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개별적인 이즘들에 대한 저자들의 논의에 관해 구체적인 비평을 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은 물론 지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추후 이 책의 수정증보 단계에서 보완 되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지적하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이 책은 르네상스 이후 출현한 서양의 다양한 이즘들을 '지적운동'이라는 제목하에 다루고 있다. 그리고 머리말에서 김영한교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휴머니즘·보수주의·자본주의·공산주의·전체주의(와) 같은 주요한 이즘이 빠져 있다"고 시인하면서 추후 보완할 계획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지적운동'이라는 책의 제목에 충실한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운동은 '이즘'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르네상스기의 휴머니즘과 더불어 서양의 근대를 대동시킨 가장 커다란 '지적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함은 책을 구상하면서 소재를 선택할 때 근대 이후 출현한 서양의 다양한 이즘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나중에 책의 제목을 '서양의 지적운동'으로 붙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필자는 김영한교수와 더불어 공산주의·보수주의·자본주의의 소재가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 공산주의는 부분적으로 최갑순교수의 '사회주의'에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자본주의와 보수주의(그리고 20세기 후반을 풍미한 신보수주의)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이 특히 아쉽게 생각된다. 나아가 19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래 자유주의,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세가지 이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 ('사회주의'를 논의하는 최갑순교수의 글에서 부분적으로 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신자유주의'를 소개하는 송규범교수의 글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 이즘들은 이미 지배적 이념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기존의 이즘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거부운동'이나 '지적혁명'의 성격을 지니기 보다는 새로운 지적운동에 의한 거부와 도전의 대상이 되는 기성 이즘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이들 역시 '거부'와 '혁명'의 이즘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이즘들의 향후전망—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세기말이라는 역사의 전환기를 앞둔 시점에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항목 보충하면 훌륭한 '서양사상사 사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책이 휴머니즘·종교개혁운동·자본주의·자유주의·보수주의·민주주의·전체주의·공산주의 등을 보완한다면 근대 이후 출현한 서양의 다양한 이즘을 총괄하는 '사전'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김영한교수가 약속한 보완계획을 관심있게 주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성사 연구를 통한 차하순교수의 남다른 학문적 공헌은 무엇보다도 차하순 교수의 뜻을 계승한 저자들의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해서도 충실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하순 교수의 학덕과 학은은 그 자신의 연구성과는 물론 이 책을 통해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을 쓴 저자들의 노고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다.

지식산업사/A5신/714면/16,000원